

5개그룹 낳은 경남 진주 ‘기업가정신 수도’ 됐다

매경·경영학회·진주시 선포식

삼성·LG·GS·LS·효성 등
글로벌기업인 300명 배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탈출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 열정을 되살리는 길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LG·GS 같은 대기업의 뿌리와 초심(初心)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다.”

경남 진주시 지수면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LS 구태희 효성 조흥재 등 한국을 대표하는 5개 그룹의 창업주들이 꿈을 키운 한국 기업가정신의 발원지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 마을에서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한 것은 유일무이하다. 한국 기업가정신의 산실인 셈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경영학회와 진주시는 10일 매일경제신문과 손잡고 글로벌 창업가를 배출한 경남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했다.

▶관련기사 A4면

이날 경상대 경영대학에서 열린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식 및 중소기업 경영포럼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창업주들의 정신을 기리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복돋을 방안을 논의했다. 진주를 구성점으로 이들 창업주의 개척·도전

정신을 잇고 기업가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선포식 취지다.

진주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인을 배출한 지역이다. 100년 역사의 진주 지수초등학교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1회), 조흥재 효성그룹 창업자(1회)를 배출했다. LG·GS·LS·효성그룹의 2·3세대 가운데 상당수 경영자가 이곳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다. 진주시에서만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등 300여 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나왔다. 이두희 한국경영학회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원동력은 불굴의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들”이라며 “한국 경제가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업가들의 열정과 기업가정신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진주시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반성식 한국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원 원장은 “기업가정신과 창업활동은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해 국가 경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서 “기업가정신과 창업 성장을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4면에 계속

진주/황순민 기자

韓 청년고용률 42%…OECD중 ‘최악’



文대통령 맞이하는 인도 대통령·총리 인도 국민 방문 서울패인 10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뉴델리 대통령 공관 앞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 <뉴델리/김재훈 기자>

15~29세 국가비교 첫 통계

35개국중 30위 그쳐

美·日과 10%p이상 격차

주요국 계속 나아지는데

유독 한국만 ‘계걸음’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연구원의 미공개 연구보고서인 ‘청년 고용 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9세 인구 928만 2000명 중 취업자가 390만 7000명에 그쳐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A3면

이번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청년 나이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15~29세)으로 통일해 분석한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OECD 기준(15~24세)과 한국 기준이 달라 국제 비교의 타당성이 크게 떨어졌다. OECD 35개국 중 한국보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벨기에(41.6%), 칠레(41.5%), 스페인(39.2%), 이탈리아(30.3%), 그리스(29.2%) 5개국뿐이었다.

청년고용률 절대 수치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동안 우리나라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2년 이후 6년간 1.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은 4.9%포인트, 일본은 3.1%포인트, OECD 평균은 2.7%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OECD 국가 청년 고용률 순위
(청년은 15~29세)

순위	국가	고용률(%)
1	아이슬란드	78.8
2	스위스	71.8
3	네덜란드	69.3
5	영국	65.4
10	미국	60.6
12	독일	58.7
15	일본	56.8
21	멕시코	49.2
30	한국	42.1
32	칠레	41.5
35	그리스	29.2

*자료=OECD 통계

후 다른 나라들은 본격적인 경기 상승 국면을 맞이해 청년들 고용을 늘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역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선진국을 따라가도 시원치 않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청년고용률이 높아질 때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했다. 신세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새로 사람을 뽑지 않다 보니 청년들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들이 대부분 구직 의사를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경우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한다는 점에서 실업률을 보완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청년고용률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악화되는 추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OECD 평균과 같았다. 미국(7.2%)과 일본(4.4%) 등에 비해서는 한참 저조한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청년실업률이 2.3%포인트 높아진 반면 미국은 5.8%포인트, 일본도 2.6%포인트 낮아졌다. A3면에 계속

최희석 기자

스마트시티 기술로 도시문제 푼다

정부, 대구·시흥 2곳 선정
매경 국민보고대회 제안한
‘이데아시티’ 모델 적용

정부가 교통·치안·재난·일자리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실제 도시에서 적용해 해결해 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실증도시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를 선정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3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제안한 ‘이데아시티’ 미래도시 전략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채택된 것이다.

▶7월 10일자 A1·16면 보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으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843억원(국토부 453억원·과기부 390억원), 민간 267억원, 지

자체 49억원 등 1159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한다.

▶관련기사 A10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원하는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처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하면 기존 도시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빈 땅’을 4차 산업혁명 기술 시연장소로 활용한다면, 실증도시는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사는 3월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증도시’를 제안한 바 있다. 유럽의 안도라공국과 핀란드 칼라사타마 등이 ‘스마트시티 실험실’로 변신 중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도 도시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10면에 계속

손동우 기자

文 “뭍바이 인프라 건설에 韓기업 늘려달라”

文대통령 - 모디총리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스마트시티,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재생에너지 등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

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뭍바이 남부해안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디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A5면

문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공식 환영식, 단독·확대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오찬 등 일정을 소화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실질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자

로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을 현재 2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확대하는 ‘한·인도 비전성명’을 최초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적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정상 간 상호 방문 정례화 등 양국 국민의 교류 확대 △상호 보

광주전남 CEO포럼 개막

최정표 KDI원장 단독 인터뷰

A14면

EDU journal

B1~8면

Live 중소기업

C1~8면

PANGYO THE HILL
도심형 전원주택 “남판교 더힐”
단독주택단지(대채) 분양

대채 내로
설계한다!

모델하우스
OPEN

상가 이미지 컷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20분!!
남판교 대장지구 최고의 수혜지역
고기동 마지막 주택단지

- ☑ 대지 24필지 전 세대 필지분할 및 건축허가 완료
- ☑ 남판교 신도시(대장지구) 인접
- ☑ 고기리 진입도로 12m 확정, 포장 공사 중
- ☑ 즉시 건축가능

전원주택 업계 1위 nd엔디하임과 고품격
전원주택단지 남판교더힐이 만나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1:1 맞춤 견적

www.ndhaim.co.kr/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031)265-0880

글로벌기업 요람서 자란 진주 인재들… 재계 보석같은 CEO로 우뚝

진주 출신 CEO 맹활약

삼성·LG·GS 창업주 외에
SK·현대 CEO 다수 배출

대교·넥센타이어·신라젠 등
‘창업 DNA’ 눈부신 활약

경남 진주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나 구인회 LG그룹 회장처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자들만 배출한 게 아니다. 수많은 최고경영자(CEO)가 진주 지수면에서 시작된 ‘기업가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경영학회(회장 이두희)와 진주상공회의소(회장 금대호) 등에 따르면 진주 출신 재계 현직 회장·대표이사급 인사만 110명에 달한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과 그의 아들인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대표적인 진주 출신 기업가다.

이 밖에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홍순기(주)GS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부회장), 송대현 LG전자 사장 등 전문경영인들도 현직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주 출신 창업주 CEO인 강영중 회장은 1975년 서울 종암동 일대 네평 남짓한 공간에서 ‘중암교실’을 열면서 교육 사업에 발을 들였다. 기존의 일반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면서 일약 혁신을 일으켰다. 일대일 방통교육 서비스로 회원을 늘리면서 사세를 확장했고, 대교그룹을 증권그룹으로 일궈냈다. 강 회장은 30년 가까이 기부 활동을 하면서 특히 스포츠 인재 양성 등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넥센타이어를 창업한 강병중 회장도 진주가 낳은 불세출의 CEO다. 1973년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흥아타이어공업’을 설립한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에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우성타이어(현 넥센타이어)를 인수해 당시 부채비율이 6000%에 육박하던

진주 출신 전·현직 CEO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현직경영인	
이름	회사·직책
문은상	신라젠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홍순기	(주)GS 사장
송대현	LG전자 사장(H&A사업본부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우기흥	대한항공 부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전직경영인	
손길승	SK 회장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박원배	한화 부회장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

회사를 100%대 우량 기업으로 변모시켰다. 넥센타이어는 2000년 사명 변경 이후 19년 연속으로 주주총회를 가장 먼저 여는 주주 1호 기업이라는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지켜온 투병경영, 주주 중심 경영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공급이 계속 증가해 넥센타이어 실적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 강 회장은 올해 5월 모교인 동아대에 발전기금 150억원을 쾌척하는 등 후배 기업가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강 회장 아들인 강호찬 사장은 진주 출신이다. 강 사장은 아버지인 강 회장과 넥센·넥센타이어 공동 대표이사를 맡아 그룹 경영을 이끌고 있다. 해외 투자 확대,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넥센타이어를 글로벌 톱10 타이어회사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이 밖에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도 진주 출신으로 유명하다. 치과의사 출신인 문 대표의 부산대 병리학교실 교수로 근무했으며 2006년 면역항암제 전문기업인

라젠을 창업했다.

현직 CEO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하만덕 대표이사는 진주 대교출신이다. 보험업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미래에셋생명 전신인 SK생명에 입사해 2011년부터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미래에셋생명 내실경영 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주고를 졸업한 박동욱 사장은 1988년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로 옮겨 재무사업부장, 재정사업부장 등을 거쳐 2011년 현대건설로 돌아왔다. 올해 3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최고재무전문가로 통하는 박 사장은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노동자 없는 업황에서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갑사원 출신인 김조원 사장은 검찰 방산비리 수사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KAI에 구원투수로 등판해 경영 정상화고 빠른 뒤를 쥐고 있다. 경남 주축 기업인 KAI는 그가 취임한 이후 산학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다른 진주 출신 CEO인 허인 은행장은 장기신용은행 출신으로 처음 국민은행장에 선임됐다. 취임 후 허 은행장은 디지털금융·해외사업 등 신사업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디지털 KB’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GS그룹의 안방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홍순기 사장과 LG전자 생활가전을 이끌고 있는 송대현 사장을 비롯해 우기흥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현직에서 묵묵히 활약하고 있다. 진주 출신 원로 기업인들의 존재감도 묵직하다. 손길승 전 SK회장이 대표적이다. 김승정 전 SK글로벌 부회장은 손 회장과 진주중학교 동기동창이다. 이 밖에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박원배 전 한화 부회장, 허태학 전 삼성석유화학 사장, 제진훈 전 제일모직 사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진주 출신인 하용득 변호사(GS건설 전 부사장)는 “굴지의 대기업에 일군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을 보고 자란 인재들이 우수한 CEO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역사회에 구축됐다”고 분석했다. 김조원 사장, 송대현 사장 등이 바 변화사의 진주고 동기(46회)다. 윤성환·황순민 기자



경남 진주시·한국경영학회·매일경제신문 등은 지난 10일 경상대에서 세계적 기업인을 많이 배출한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주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권영학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두희 한국경영학회 회장, 조규일 진주시장, 이상경 경상대 총장, 정진수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이용재 한국남동발전 기획관리본부장, 박영근 중소기업경영포럼 위원장, 윤한성 경상대 경영대학 학장(앞줄 왼쪽부터)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상대)

삼성의 인재제일·LG 인간존중 뿌리는 ‘영남학과 거두’ 남명 조식선생 敬義사상

사람 중시·의로움 실천 강조
장수기업 정신으로 이어져



조식 선생

경남 진주시는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LS 구태희, 효성 조홍제 등 한국 기업사(史)를 대표하는 5대 대기업 창업주를 배출한 곳이자 강병중 넥센 회장,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손길승 SK 회장 등 300명이 넘는 글로벌 경영자를 배출한 ‘기업가정신’의 발원지다.

최근 학계에서는 진주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업가들의 요람이 된 근간에는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영남 학파의 거두인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의 경의(敬義) 사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한 남명 조식의 정신에 기반을 둔 진주의 기업가정신은 “작은 이윤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의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뜻을 지향한다.

정대명 경상대교수는 11일 “진주 지역은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이 정신적 주류를 이루는데, 이 지역 창업자들의 선대는 유학자들로 남명 선생 후학들”이라며 “‘사람을 중시(敬)’하고 ‘의로운 뜻을 품었으면 반드시 실천한다(義)’는 실용주의적 사상이 삼성의 인재제일·실용주의, LG의 인화정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모든 벼슬을 거절하고 진주 덕천동으로 이거해 죽을 때까지 학문에 전념한 남명 조식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론의 실천을 중시한 학자였다. 실제 임진왜란

이 발발하자 그의 제자 50여명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의병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최근 학계는 진주 지역에서 발원한 기업가정신 이조식 선생의 이같은 경의사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 남명사상과 진주 기업가정신을 연구해온 이상호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윤을 취할 때 의리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서부경남 기업인들의 면모는 의로움을 강조하고, 이론보다 실천을 더 중시했던 남명 조식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창업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가치가 보편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를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수시로 변하는 경영 상황에서 눈앞의 작은 이윤에 연연하지 않고, 인재를 중시하며 큰 흐름을 바라보는 합리적 경영으로 사회적 기여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GS그룹 효주 허만정 창업주는 독립운동가인 백산상회에 큰돈의 독립자금을 기부했고,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사 운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3·1운동 이후에는 민족정신을 교육할 목적으로 현 진주여고의 전신인 일신 여학교를 1925년 설립해 광복 후 국가에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구자 격이었다. 이는 GS그룹의 기업가정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연암 구인회 LG그룹 창업 회장은 일제강점기 때 막대한 돈을 독립자금으로 쾌척했다. ‘인간 존중의 경영’으로 발전한 구 회장의 ‘인화단결’은 4대에 걸쳐 LG그룹의 사신인 인간존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화단결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화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단합하는 것이다.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은 “국내외 정세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며 투기는 절대로 피하고 직관력을 키워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는 합리주의의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인재제일주의·사업보국주의 정신은 삼성을 이루는 뼈대였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만우 조홍제 회장 역시 “기업하는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는 일이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을 일찍부터 강조했다. 조 회장은 6·10만세운동을 주동해 종로경찰서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정 교수는 “기업이 정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필수적인데 이들 창업주는 일찍부터 시대를 훨씬 앞서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윤희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사는 “진주는 과거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이 크게 발달했다”며 “구한말 신분제 사회에서는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상인들이 권위를 위해 화합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는 등 진주상인 특유의 끈끈함과 넉넉함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최승균 기자·황순민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 “폐교 지수초에 기업사관학교 설립”

“훌륭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0일 경상대 경영대학에서 열린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식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진주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그룹의 창업주를 배출한 곳으로 기업가정신의 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주를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글로벌 기업인이 배출됐으나 지

리직 한계와 행정력 부족으로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었다”며 “이번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식을 계기로 ‘진주 속에 묻힌 진주’를 되찾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 시장은 “도청 소재지 창원 이전, 산업과 과정에서 뒤처지는 안목기에도 LG, GS, 삼성, 효성, 넥센, 대교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진주에서 학교를 나온 출향 인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며 “이는 진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신이 기업가정

신으로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창업주들이 다녔던 폐교된 지수초등학교를 활용해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관 및 기업사관학교를 건립해 기업가정신의 교육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LG, GS, 삼성, 효성그룹의 창업주 생가를 방문하는 팸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해 체험형 관광산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최승균 기자

제 11기 서울대-한국전력 에너지 CEO과정 모집안내

“미래 에너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서울대-한국전력 에너지 CEO과정에
에너지 산업계의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 공·사 기업체의 경영자 및 임원 · 정부 각 기관의 고위 공무원 · 판사·검사 등 법조인 · 각 권의 장성급 장교 ·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타 연구기관의 고위 연구원	접수일정	2018.06.20(수) ~ 2018.08.17(금)
접수방법	온라인 입학지원 및 서류제출 지원절차 및 서류, 교육브로서는 http://snukep.kr 참고	접수비용	없음
교육기간	2018.09.07 ~ 2018.12.21(매주 금요일)	문의처	서울대-한국전력 에너지CEO과정 운영사무국 TEL : 02)878-7242 E-mail : snu-kep@snu.ac.kr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30동 511호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17:30 ~ 20:50		

매경 실전 경매마스터 과정 9기

전문적이고 탄탄한 40시간 경매 성공 비법!
부동산 경매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 일시
2018년 7월 19일 ~ 9월 27일 매주 목요일 19:00~22:00
※ 7월 12일 경매 기초 특강 (사전 신청)

교육 비
88만원 (선착순 30명)
※ 부동산 태인 3개월 전국 경매정보 무료이용권 제공
※ 법정 참가액 (별도)

커리큘럼

목차	강의 내용	날짜	목차	강의 내용	날짜
1강	- 부동산 경매, 어떻게 볼 것인가 (사전 신청)	7/12 (목)	6강	- 경매물권 담사	8/16 (목)
2강	- 경매 절차 (경매 절차 및 입찰시 주의사항)	7/19 (목)	7강	- 상가 경매	8/23 (목)
3강	- 특수관리분석(유치권)	7/26 (목)	8강	- 토지 경매	8/30 (목)
4강	- 선수위 입찰인(가점)	8/2 (목)	9강	- NPL	9/7 (목)
5강	- 선수위 입찰인(가점)	8/9 (목)	10강	- 종목별 관리분석	9/14 (목)
6강	- 특수관리분석(2법정지상권)	8/16 (목)	11강	- 인도 (요청, 점유 유행법 전략)	9/21 (목)
				- 배당(원칙 및 배당 순위)	9/27 (목)

강사진
강은연 교수 (EHR경매연구소 소장/국립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영민 교수 (법무법인 정성 변호사)
성시근 교수 (강남에듀평생교육원장)
고상철 교수 (지오컨설팅/랜드샵대표, 인하대대학원겸임교수)
김중용 교수 (옥탑방보보스 경매투자 대표)

교육 장소
매경 교육센터 11층(충무로역 7번 출구)

신청 문의
02-2000-5454, 02-2000-5462 / edu.mk.co.kr
본 과정은 강사진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건물에서는 주차권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후반대부터~ 합리적 공급! 가치있는 특별함!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가족 愛 집**

타운하우스·정남마을

응인, 수원, 동탄, 이천 생활권!

편리한 생활 인프라

자연을 품은 명품힐링하우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자연 속 프라이빗 하우스**

신규로만 자연속 테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맑은 공기와 맑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멋스럽고 감성있는 다목적 힐링주택을 소개합니다.

A Type 10 세대 / B Type 9 세대 / C Type 2세대

문의 1522-0471